

전남

비바람에 수정 안되고…이상저온에 씨방 얼고

나주 올 배농사 어쩌나

작과율 저조 피해 우려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 배 배배농민들이 불철 배 개화기에 내린 비와 저온 등 오락가락한 날씨로 인해 물상을 짓고 있다. 개화기 수정률이 나빠(着果) 저조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나주 지역 일선 농협과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18일을 전후로 만개한 배꽃에 대한 인공수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21~22일 물아친 바람으로 수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배꽃 수분은 만개를 전후로 3~4일 이 절정을 이루지만 꽃이 핀 후 물아친 비바람으로 수분 작업 자체가 힘들어 수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 3월 기온이 예년보다 2~3도 낮아 개화시기도 늦춰지는 등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꽂꽃이 형성되는 지난달 초 새벽대 시간이 일부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져 암술 씨방이 깊어 아는 피해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 농가들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 수분작업에 다시 나서고

있다. 배 품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배’는 자가(自家) 수정이 어려워 인공수분이 필수적이다.

나주 영산포농협 관계자는 “배꽃이 만개한 시기에 내린 봄비가 착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병충해 방제 등 적절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나주 지역은 2569 농가가 2400여㏊에 배를 재배하는 대표적 배 주산지이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영광 불갑저수지 통수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24일 영광군 불갑면 불갑 저수지에서 불갑호 통수식을 가졌다. 통수식에는 본사 임일선 이사·김종원 경

영지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운영대의원, 농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오디’ 10배 더 수확한다

전남농기원 가시없는 꾸지뽕 품종 개발

대체작목으로 꾸지뽕나무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시없는 꾸지뽕나무가 개발돼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꾸지뽕나무 ‘전남 2호’(품종명 대풍)를 국내 최초로 육성, 최근 품종보호 출원을 했다.

꾸지뽕나무 신품종은 지난해 농촌

진흥청의 직무유성심의회와 산림청 산림과학원의 현장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풍’은 가시가 없으며 큰 오디가 야생종에 비해 10배 정도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어서 가공용으로 적합하다. 꾸지뽕 잎을 이용한 누에사육도 가능해 기능성이 향상된 누에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동기자 song@

그동안 꾸지뽕 재배농가들은 꾸지뽕을 수확하거나 이용하려면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원예연구소 이성성 박사는 “이번 신품종은 농가 현장 실증시험을 실시해 재배상의 문제점과 가능성분을 이용한 가공성 등을 최종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내 재배농가에게 농가의 소득증대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약용에 적합한 꾸지뽕 품종 ‘전남 1호’와 차제조에 적합한 ‘전남 3호’ 계통을 육성 중이다. 이들은 생산력 검정시험을 거친 후 내년에 품종보호출원할 계획이다.

이번 의료봉사는 나사면·해보면·월야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부녀자,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8·장홍읍) 양 집을 방문해 방 도화와 장판교체, 웃장기증 등 위로사업을 펼쳤다.

김명환 지원센터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돋기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홍·강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10명에 달하는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관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

“성범죄 피해자와 아픔 나눠요”

장흥·강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주거개선 사업

장흥·강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김명환·이하 지원센터)가 성폭행 피해자 가정돕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광주지검 장흥지청 관찰에 발족된 지원센터는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개선 등 이웃돕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원센터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과 함께 최근 지난해 8월 지적장애인(3급)로 성폭행을 당하고 아버지와 3남매가 살고 있는 A양

무안갯벌서 ‘대추귀 고등’

국내 습지보호지역 제1호인 무안갯벌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대추귀 고등’ 서식처가 발견됐다.

이는 목포대가 무안군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저서생물 모니터링’(2011년 10월~2012년 4월)에서 밝혀졌다.

대추귀 모양이 비슷한 대추귀 고등은 주둥이 지름이 17mm이고 껍데기 높이 34mm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안갯벌에는 ▲연체동물 73종 ▲환형동물 70종 ▲질지동물 66종 ▲ 기타 20여종 등 229종의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김민준기자 yousou@kwangju.co.kr

전남농협 오지 농기계 수리봉사



“농협에서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해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농기계수리 무상봉사를 실시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매년 농기계 수리 환경이 나쁜 도서와 오지 지역의 위주로 농기계 무상 수리 봉사를 실시해 농기계 고장 수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 및 부녀 농업인들에게 적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수자원공, 함평 주민과 ‘의료 나눔’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관리단(단장 이범숙)과 열린 의사회(이사장 고병석)는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9일 함평군 해보면 해보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봉사는 나사면·해보면·월야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부녀자,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의료봉사는 의료진 16명을 비롯해 K-water 전남지역본부 봉사단인 ‘남도 다솜이’와 함평수도관리단 직원 등 총 8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의료봉사는 노인인구가 많은 함평지역 현실을 감안해 한방과 치과·내과·외과·통증의학과 등의 진료와 처방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3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부안수협 수산물가공공장은 식약청 HACCP 시스템
지정업체로 최첨단 설비와 위생시스템을 갖추고
제품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담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뽕잎간고등어



뽕잎 참조기



뽕잎맛김

**뽕잎으로 절여
비린내가 전永不 없는
부안수협의 모든 주산물 제품은
100% 국산 만을 사용합니다.**

뽕잎간고등어가 맛있는 이유!

- 겨울철 참 고등어만 사용해 씹는맛이 다릅니다.
- 특히 반은 뽕잎절임기술을 사용하여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없습니다.
-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가시를 빨라내어 조리하시기 편리합니다.
- 부안수협의 위생적인 살균시스템을 통해 믿을수 있습니다.

부안수협 업동조합

www.buansuhup.co.kr

고객기쁨센터: 063)584-3101~2